

<3월 19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불자님과 함께하는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청법가
- 법문 - <반야심경과 禪>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혜원스님
- 음성공양 - 신도회 합창단
- 정근
- 사홍서원

※정각원신도 장학증서 수여

<4월 초청강좌 안내>

날짜	주제	법사
4. 2 (토)	행복한 삶	신재호 교수 (동국대 기획부총장)
4. 16 (토)	불공의 의미와 내용	신규탁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3월 26(토), 4월 9(토) 개인 정진 바랍니다.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 의 실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법학관 B255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고금스님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대각전 원불봉안 안내>

염원을 담아 願佛 봉안하시고
기도성취와 동국대 발전에 함께 해주세요.

1人 1佛 - 100만원 이상(분납가능)



정각원 부처님께 공양미 올리세요!
보시금은 1만원입니다. <정각원 신도회>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권선

연등을 다는 마음 행복한 마음
연등을 다는 마음 진리와 함께하는 마음



- 동국발전등 : 100만원 이상
- 동국인재등 : 50만원 이상
- 소원성취등 : 30만원 이상
- 가족행복등 : 10만원 이상
- 영가등 : 10만원 이상

신도님들께 연등 권선부를 나눠드리니 연등 모연에
동참해주세요.

☎정각원 행정팀 2260-3016

<정각원 봉축 주요 행사>

- 4월 12일 연등점등식
- 4월 27일 봉축 수계대법회
- 5월 7일 연등회 (연등행렬)
- 5월 14일 봉축법요식

보시동참

☎ 3월 5일 불전 공양 ☎

₩930,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보광스님, 혜원스님, 진우스님, 강은희, 고목훈, 광문규, 구리시효자봉비어, 권복숙, 권혁채, 김기현, 김문자, 김성희, 김원욱, 김유신, 김종판, 남대문효자손만두, 남창감, 도운수, 박선재, 박성진, 박세협, 박재호, 박정훈, 성장기, 신재호, 안대준, 안정수, 양영진, 양영호, 유용재, 윤병남, 윤호근, 이기형, 이동하, 이봉자, 이상환, 이선향, 이성부, 이수준, 이인주, 이해정, 이훈중, 임삼영, 정보현, 조인숙, 주호빈, 주호성, 채선자, 최복길, 최은진, 하지현, 한상훈, 한영욱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416,400원

(법사비, 토요일회 녹화영상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공양 ☎

김미나, 박성태, 박승우, 김미연, 김연주, 최운재, 박이지, 하승보, 최민준, 이소원, 이승주, 이섭주, 이용우

☎ 공양 보시 ☎

❖ 불단 떡, 과일 : 16학번 학부모 불자회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딱 한번만!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장한 불자 뭉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60(2016)년 3월 19일

제324호(週刊)



자애로운 마음으로 탐욕을 끊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노여움을 끊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불쾌해하는 마음을 끊고, 집착에서 떠난 마음으로 탐욕과 성냄을 끊어라.

『 열반경 』

혜거 큰스님 ‘한비자(불교와 도교)’ 법문



◎ 불기2560(2016)년 3월 15일 (화) 금강선원 선원장이신 혜거 큰스님을 모시고 교직원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많은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비자(불교와 도교)’ 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각

〈반야심경과 禪〉

정각원장 혜원스님

『반야바라밀다심경』(唐 현장역 649-648)

본경은 대승불교의 참된 정신을 보이는 경전이며 또한 맹주경(明呪經)이라고 한다. 경을 독송하면 일체고액을 벗어나고, 온갖 재해를 제거, 원적(怨敵)을 물리침. 불자들은 정신을 집중하여 독송.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건오온개공 도일체고액. ...」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에서 행할 때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

*깊다(深): 바라밀다중 가장 깊은 것

*깊은 반야바라밀다: 무분별지(無分別智). 아공(我空) 법공(法空)임을 체득하는 것.

*반야바라밀다에서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에 의해 행해지는 것.

「조건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조건하다.

*오온 - 색.....몸 (事物사물)

수.....감정

상.....인지

행.....의지

식.....판단

그런데 오온이 왜 공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야심경』 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반야바라밀다의 지혜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공의 조건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다에 의해 대상적(物물·事事)으로 파악된 것들이 순간 없어진 데에서 열린 直覺직각(근본 無分別智무분별지)에서 실현한 것.

禪(선)

중국선종의 시작은 보리달마와 양 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부터다. (6세기), 그는 대승불교를 전법하였고 그 핵심이 ‘理入이입(安心壁觀안심벽관)’이며 ‘四行사행’이다.

*사행이란,

보원행(報怨行), 수연행(隨緣行), 무소구행(無所求行), 칭법행(稱法行).

보리달마 선사와 양무제의 대화 :

“많은 불사를 하였는데 공덕이 있겠소?”,

“무공덕”

“그대는 누구요?”,

“부식(不識)”

혜가의 대화 :

“불안한 마음을 가져 오너라.”

중국의 초기선(6-7C): ① 미혹한 자기를

(보리달마~대통신수)

② 좌선을 통해 극복하고

③ 본래 부처로서의 자기로 회복하는 것